

환자에게 작용되는 obturator는 장착시 편안하고 발음, 저작 및 연하 기능을 회복하고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이다.

이 증례는 상악의 광범위한 구개 결손이 있는 환자에서 잔존치가 소수 남은 경우에 obturator의 안정, 지지 및 유지를 얻기 위해 swing-lock framework을 이용하여 보철물을 제작한 증례이다.

OVI-6

Magnet를 사용하여 Obturator와 Orbital Prosthesis를 연결한 악안면 결손수복증례

노현기*, 허성주, 장익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악안면 영역의 종양 수술후, 결손된 구개부와 안구 및 안외부를 obturator와 orbital prosthesis로 보철수복한 증례이다. 악안면 보철물의 유지를 위하여 implant사용이 도입되었으나, 방사선이 조사된 경우나, 경제적 측면에서 제한된 범위를 가지고 있고, adhesive 사용시, 숙련되지 못한 손놀림을 가진 환자에게서는 정확한 안착이 어렵고, 악안면 보철용 실리콘의 수명 감소의 문제점을 가진다. 이에 해부학적 구조와 magnet를 사용한 두 보철물의 연결을 통해 retention과 stability를 얻은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OVI-7

Magnetic Denture

양은선, 정순호, 김영훈

가천 의과대학 부속 길병원 보철과

OVI-7

총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무치악 환자의 경우 지지, 유지, 안정성은 무치악제의 연조직과 경조직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환자들은 유지, 의치의 안정성의 감소로 인한 불편감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지지골의 흡수가 불가피하다.

그나마 아직 몇 개의 치아를 지닌 환자에 있어서는 유리한 치료로 overdenture가 있다. Overdenture는 치주인대의 감각이 남아 있으므로 인해 환자에게 정신적인 위안과 안정감을 주며, 잔존치조골의 흡수는 감소하며 지지능력은 향상되게 된다. 또한 저작 능력과 함께 의치의 유지 및 안정성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임플란트의 발달로 인해 잔존치아가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서도 2-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 overdenture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Overdenture에서 치아나 임플란트에 보조적인 유지장치를 사용하여 그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유지장치로 stud attachment, 치아와 치아를 bar로 연결하여 이용하는 attachment, magnetic attachment가 있다.

Magnetic attachment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크기, 흡인력, 내구성 및 내식성 등의 문제로 인해 널리 이용되지 못하다가 최근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소형으로 그러나 흡인력은 더 강력한 attachment가 개발되어 overdenture와 가철성 국소의치 등에 이용되고 있다.

Magnet을 이용하는 attachment는 mechanical retention을 이용하는 기존의 attachment에 비해 장기간 사용하여도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으며, 지대치에 힘이 집중되지 않고 특히 측방압을 적게 하여 치주적으로 지지 상태가 충분치 못한 치근이라도 사용할 수 있어 임상에 널리 적용될 수 있

102

다.

본원에서는 magnetic attachment를 완전 무치악 환자와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의치를 유지하고 지지하는데 사용하여 만족할 만한 임상적인 결과를 얻었으므로 보고하는 바이다.

금속의치상을 이용한 총의치의 수복증례

OVI-8

양병덕, 박주미, 안승근, 송광엽, 박찬운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최근에 의치상 재료로 레진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몇몇의 경우에는 금속을 의치상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잇점이 있을 수 있다.

금속의치상의 장점으로는 부피가 적으면서도 높은 강도를 가진 의치를 제작할 수 있어 의치의 파절을 막을 수 있으며, 비교적 부피가 적어 발음(phonation)의 장애를 적게 유발하며, 레진의치상에서 일어나는 sorption-related dimensional changes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또한 높은 열 전도율을 가지므로 금속의치상과 접촉하는 부위의 조직건강에 유리하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비용, 심미적인 문제, 의치상의 첨상이 어렵다는 점과 추가적인 기공작업의 필요 때문에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레진의치상으로는 적당한 물리적 성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속의치상에 의해 충분한 물리적 성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적응증이 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상,하악 총의치환자에서 일반적인 금속의치상을 이용한 수복증례와 비교적 상악의치상의 파절이 빈번한 combination syndrome환자의 금속의치상을 이용한 수복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상악 견치 잔존 환자에서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물의 수복증례

OVI-9

박종일, 진태호, 조혜원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수복의 증가에 따라서 환자 심미적의 요구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상황이다. 고정체의 위치, 각도, 직경, 치은연의 위치와 형태 등의 여러 고려사항이 있으며, 특히 무치악 환자에서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물을 수복할 때에는 심미적 관점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지대주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지대주 선택시에는 지대주의 각도, 높이, 직경, 지대주 주위의 연조직과의 조화, 금속의 노출에 대한 처리 등 여러 요소들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과거 구강위생의 개념을 강조하여 고정체-지대주 계면을 치은연상에 위치시키는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이 일반적으로 계획되어 왔으나 점차 증가하는 환자들의 심미적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고정체-지대주 계면을 치은연 하방에 위치시키는 경향이 증가되었으며, 얇은 지대주 주위의 치주조직에 비춰 보이는 금속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도재 지대주의 사용이 환자들의 심미적 요구에 부합되어 왔다.

본 증례는 55 세된 남자환자로 양측 견치를 제외한 상악치아를 발거하고 Brånenmark implant 고정체를 10개 식립하였다. 임플란트지지 고정성 보철로 수복함에 있어 전치부와 구치부에서 불리